

# 이용섭 시장, 지자체 첫 '노사상생도시 광주' 선언

첫 걸음, 광주형 일자리 사업의 성공  
노동계 협력 강화 위한 협력관 신설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은 "광주형 일자리를 반드시 성공시켜 '노사 상생도시 광주'의 초석을 다지겠다"고 천명하고, 노사상생도시 광주를 실현하기 위한 세부 계획을 밝혔다. 노사상생도시를 선언한 것은 지자체 중 광주가 처음이다.

이 시장은 14일 오전 시청 브리핑룸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자원이 없고 입지와 접근성에서도 불리한 광주가 기업을 유치하고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노사상생도시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면서 "광주에 투자하면 수익이 난다"는 새로운 공식을 만들어 '정의로우한 도시'가 기업하기도 좋은 도시"라는 대명제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노사상생도시를 노동이 존중받고 기업하기 좋은 도시, 노동자에게는 안정된 일자리를 드리고 기업에게는 적정



이용섭 광주시장(가운데)이 지난해 12월 9일 광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광주형 일자리' 사업을 반드시 성공시키겠다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한 수익을 보장하는 도시를 의미한다고 밝히면서 노사상생도시의 첫 걸음으로 광

주형 일자리 사업의 성공을 꼽았다.

그는 "은 국민의 성원에도 불구하고 광주형 일자리 모델의 첫 사례인 완성차공장 투자협약 체결을 지난해 마무리하지 못해 참으로 송구스럽다"면서 "다양한 이해관계가 크게 갈리다 보니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상생협의회 결정 사항 유효기간'을 제외하고는 모든 쟁점에 대해 합의를 이끌어 낸 것은 큰 성과이다"고 평가했다.

이어 "협상이 진행 중이라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지만 유일한 쟁점인 '상생협의회 결정사항의 유효기간'에 대해 협상 당사자들이 모두 수용할 수 있도록 보완 방안을 진지하게 논의 중에 있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또 "지난해 12월 6일 협약체결이 무산된 이후 광주시는 완성차 공장 유치는 물론 광주형 일자리를 지속가능한 사업으로 산업전반에 확산시켜 노사상생도시를 만들기 위한 프로젝트를 준비해왔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당사자 간 신뢰회복과 추진동력 확보를 위해 시장이 직접 협상단장을 맡았고 더 나아가 광주형 일자리 사업의 영역 확대와 지속성 담보를 위해 '완성차공장 투자협상팀'을 '광주형 일자리 추진T/F'로 확대 개편 중에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노사상생도시의 필수조건인 노동계와의 협력 강화를 위해 지난해 말 4급 상당의 노동협력관을 신설해 현재 공모 중에 있고, '사회연대일자리특보'(2급 상당 전문임기제)를 임명해 노동문제와 사회통합형 일자리 창출 전반에 대해 시장을 특별 보좌토록 했다고 전했다.

사회연대일자리특보는 광주형 일자리 사업 성공과 노사상생도시 광주를 만드는 일에 주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노사민정협의회의 기능과 구성을 강화해 투자유치를 추진중인 완성차 공장의 노사문제뿐만 아니라 광주지역에서 발생하는 노사갈등 전반에 대해 예방활동 및 조정·중재하고 해결하는 역

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용섭 시장은 "노사상생도시 광주"의 실현은 험난하고 먼 길이지만 국가가 어려울 때마다 시대정신과 대의를 쫓아 자기희생을 통해 역사의 물꼬를 바로 돌린 광주인 만큼 무너지는 한국경제를 다시 일으켜 세우야 할 시대적 책무 또한 광주가 잘 해낼 수 있을 것이다"고 확신했다.

이 시장은 "우리는 지금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선제적 대비와 돌파구가 필요하며, 노사상생의 사회대타협 모델인 광주형 일자리 사업이 그 해법이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시장은 끝으로 "노사상생도시 광주"를 만드는 역사적 책무에 시민여러분과 시민사회단체, 언론이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면서 "특히 노사상생도시 실현의 첫 걸음인 완성차 공장의 성공을 위해 현대자동차와 지역 노동계의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드린다"고 각계의 협조를 요청했다.

/광주=봉태영 기자 bcy2020@metroseoul.co.kr

## 광주 복구, 자동차세 연납하면 세금 할인

연세액 10% 할인... 이달 말까지 접수

광주시 복구가 2019년 자동차세 연납 제도로 주민들에게 세금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광주 복구는 1년분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세금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오는 31일까지 접수한다고 14일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는 제도로 연세액의 10% 할인을 받을 수 있다. 1월에 연납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에도 3월에 신청하면 7.5%, 6

월에는 5%, 9월에는 2.5%를 할인 받을 수 있다.

연납신청은 복구청 세무2과로 전화·방문 신청하거나 위택스에 접수·신청하면 된다. 납부는 고지서를 수령 후 직접 납부, 가상계좌, 신용카드, 위택스, 인터넷지, ARS, 모바일(스마트 위택스 앱) 등을 이용하면 된다.

문인 복구청장은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차량 소유자의 세금 절감은 물론 자진 납부를 유도하는 유용한 제도"라며 "이 제도를 통해 많은 주민이 세금 할인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광주=봉태영 기자

## 평택해수청, 도서지역 등대시설 안전점검

항로 상태 점검해 해양사고 대비

평택지방해양수산청은 설 명절을 대비하여 평택·당진항 및 도서지역을 운항하는 선박이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도록 등대시설 39개소에 대해 2주간(14~28일)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안전점검은 인천-풍도, 전국-입파도, 궁평-국화도를 운항하는 여객선 항로에 설치된 등대시설에 대한 및 장비 상태를 점검해 안전한 귀성·귀경길을 마

련할 계획이다.

또한, 연휴 기간 동안 등대시설의 소등, 유실 등 기기고장 및 사고에 대비하여 신속히 출동할 수 있도록 비상연락 체계를 유지하고, 해양사고에 철저히 대비할 예정이다.

평택해수청 관계자는 "설 명절 기간 동안 평택·당진항의 바닷길을 안전하게 이용하여 즐거운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항로표지 시설물 관리·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평택=이보현 기자 bhlee7777@

## "투어패스로 자유로운 완도 관광하세요"

완도군 '완도 투어패스' 출시  
모바일 티켓으로 하루동안 자유이용  
완도타워·청해포구 활영장 등 관광

완도군은 완도 유료 관광지 6곳을 모바일티켓 한 장으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완도 투어패스' 상품을 개발해 올해 연말까지 시범 운영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완도 투어패스는 구매자가 최초 사용일로부터 1일(24시간)동안 사용 가능하다. 가격은 성인 기준 정상가에서 45% 이상 할인된 9900원이다.

구매는 아놀자, 가자고 등 10여 개의 오픈마켓, 소셜커머스, 여행 예약 플랫폼 판매채널에서 할 수 있다.



패스권 사용이 가능한 관광지는 완도타워, 청해포구 활영장, 모노레일, 장보

고기념관, 해양생태전시관, 어촌민속전시관이며, 옵션 상품으로 짚라인 체험 할 인권을 판매한다.

완도군 관계자는 "완도투어패스 출시를 통해 완도 여행을 유도하고 아울러 도서 지역의 상품도 추가할 계획"이라며 "올해 시범 운영 후 문제점을 보완하여 내년도에 상품을 본격 출시해 국내뿐만 아니라 외국인 관광객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향후 해양치유산업 유료 체험 프로그램 및 2021년 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 입장권 등을 완도의 유료 관광지들과 결합해 관광객들의 방문 지역을 확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남 완도=이제건 기자 wando1106@

## 경기도, 안심비상벨 1564개소 설치

"비상벨 설치 잘했다" 82.4%  
안전한 공중화장실 조성 기여

경기도는 도민들이 안심하고 공중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도내 취약지역 공중화장실 1564개소에 대한 안심비상벨 설치를 완료했다고 14일 밝혔다.

'안심비상벨'은 공중화장실 내 세면대 벽면이나 용변기 칸 등에 설치되며, 위급상황 발생으로 위험을 느낀 도민이 소리를 외치거나 벨을 누르면 작동, 외부사이렌 울림과 동시에 경찰서 상황실이나 CC TV통합관제센터 등으로 위험을 알리는 체계로 구성되었다. 특히 통신이 불가해 경찰서 등과의 연계가 어려운 지역의 경우, 지역 현장 여건에 따라 상주하는 관리인 등에게 알림으로써 갑작스럽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신속 대처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도는 공중화장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범죄 등으로부터 도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지난 2017년부터 3억 원의 예산을 들여 '공중화장실 안심비상벨 설치사



경기도 31개 시군에 설치된 비상벨 일부. /경기도

업'을 진행, 지난 2017년 478개소, 지난해 214개소 등 총 692개소에 안심비상벨을 설치했다. 그 결과, 기존에 시군 자체적으로 설치한 872개소를 포함해 도내 공원 등 취약지역 공중화장실 1,564개소에 안심비상벨 설치가 완료됐다.

이에 따라 지난해 10월 경기도 온라인 패널가입자 대상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 82.4%가 '비상벨 설치 정책 추진을 잘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응답자 67.5%가 '비상벨 설치가 공중화장실 안전에 기여했다'고 답하는 등 안심비상벨 설치에 대한 도민들의 호응이 이어지고 있다.

/경기=김승열 기자 kimsy@

## 인천시 관내 공공조형물 실태조사

인천시가 공공조형물 건립 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체계적인 사후관리를 위해 관내 모든 공공조형물에 대한 실태 조사를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군·구와 공동으로 지난 7월부터 3월 31일까지 실시되며, 이를 통해 공공조형물의 건립과정에 시민의견을 반영하고 안전성 및 도시미관을 고려해 관리되도록 할 방침이다. 시에 따르면 2017년 하반기를 기준으로 인천시 공공시설 내에 공공조형물은 총 309점이 존재한다. 시 관계자는 "기존의 공공조형물을 건립하고 사후관리를 하지 않아 파손·훼손되어 흉물로 방치되는 경우가 많다"며 "공공조형물 건립 절차를 철저히 감독하고 사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적극 피력했다. 인천시 및 군·구에서는 1월초부터 2월말까지 기존 조형물의 철거 실적, 계획을 포함해 추가·무단 설치물 현황과 공공조형물 관리에 대한 자체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3월에는 인천시(도시경관과)에서 자체점검 결과 검토와 필요 시 설치현황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인천=최영주 기자 choiy@

**오늘의 날씨**

1월 15일 (화)  
음력 : 12월 10일

수도권 날씨  
-2 ~ 1°C

운동 지수 ██████████  
빨래 지수 ██████████  
세차 지수 ██████████  
외출 지수 ██████████

연천 -7/1, 동두천 -4/3, 가평 -5/3, 양평 -4/4, 용인 -2/2, 평택 -4/4, 수원 -2/2, 인천 -1/2, 서울 -2/1, 파주 -7/2, 백령도 -1/-2

해돋이 / 07:46 | 해질 / 17:37

자료제공 :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